



김용실 열사
추모의 밤을
함께하고

정현경

가
가
가.

1960 3 15

가.

가
가

가.

<

>

지난 3월11일 마산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3.15마산의거의 역동적 요소의 하나였던 마산고 21기 우리의 친구 김용실 열사의 살신 대의와 용기를 기리고자 김준형 친구가 기획 연출하고 김용실의 1학년 때 급우였던 강신평, 박용우, 박진형, 이강복 친구들을 발기인으로 하여 추모의 밤 공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종섭 21기 마산 동기회장은 무대 위의 플라멩코 춤꾼이 었던 청년들의 살신 용기와 지금 살아남은 자들의 애통함을 몸짓으로 표현할 것이고 Saxophonist, Quitarist, 그리고 테너와 합창단이 우물보다 깊은 선율로 열사 김용실 친구의 가족과 벗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것이라면서 막을 올리는 인사로 여러분들을 초청했다.

막을 올리기 전 17:30분 아트식당에서 조촐한 뷔페식사와 함께 마산 본부 동 회회를 부부 동반하여 열흘 앞당겨 가졌는데 멀리 서울에서 온 '성재삼' 친

구와 부산의 ‘조창식, 조영민, 이의승, 김성광, 친구들도 참석하여 행사를 주관한 전체 마산고 21기의 우정을 모우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종섭’ 회장은 오늘의 이 행사에 특별지원을 해 준 5명의 발기인 친구와 ‘조정웅, 김한경, 박필근, 배종길, 신용운’ 등 몇몇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추모의 밤 행사 추진에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동기생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구해룡’ 총무는 오늘 추모행사의 진행을 안내했고, 서울의 ‘성재삼, 부산의 ‘조창식’ ‘조 영민’ 친구가 큰 도움을 못쫘에도 성황리에 막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마산의 동기생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로 보답한다면서 함께 뜻 깊은 추모의 밤을 어우르자고 했다. ‘방학기’ 친구는 의거를 형상화한 추모화 삽화를 그려와 그림의 한켠에 참석자들의 사인을 넣어 동기회 사무실에 걸어 두겠다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 마산 MBC. TV에서도 취재차 나와 3.15당시의 상황에 대한 친구들과의 인터뷰도 있었다.

19:30분,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마산고 재학생 400여명과 동기 가족, 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대 ‘윤복희’ 교수의 사회로 묵념과 친구의 약력 소개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먼저 마고 21기를 대표해서 ‘조정웅’ 친구가 앞좌석에 자리한 유족들을 소개했고 ‘4.19혁명의 단초를 마련하면서 정의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거룩한 뜻을 남겨 주고 간 친구를 51년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동기들이 결코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추모의 밤을 갖게 됐다’고 무대 인사를 했다. 그런다음 자유를 갈망하는 유랑인 집시들의 고통과 저항의 몸짓을 표현한 ‘플라멩코’ 댄서에 이어 Saxophonist ‘이강복’과 Guitarist ‘석상조’의 듀오로 아침이슬, 가고파 노래 연주, ‘황영일’ 친구가 50명의 마고재학생 합창단과 함께 ‘마고의 노래’ 교가를 관람객의 호응 속에 힘차고 당당하게 불렀다.

공연 중간, 이날 공연의 기획, 연출을 맡은 ‘김준형’ 친구가 나와 오늘 공연의 주 테마가 된 ‘플라멩코’ 춤에 대하여 관람의 편의를 위해 간략한 해설을 들려 줬다. 원래 플라멩코 춤은 자유인 집시들의 굽힐 줄 모르는 저항의 몸짓으로 생의 형이상학적 도취에 이르는 통로로 볼 때 한국 전통의 살풀이와 그 노래는 판소리에 대비된다고 했다.

끝으로 자유인의 울동적인 삶과 빛과 그림자를 표현한 플라멩코 춤의 꽃 독무가 있었고 피날레 곡으로 ‘황영일’ 친구의 지휘 아래 합창과 Saxo-Guitar 듀오 연주로 ‘사랑으로’ 노래를 관중들과 합창하면서 “3.15의거 김용실 열사 추모의 밤” 공연의 막을 내렸다. 행사를 끝내고 서울, 부산의 친구들이 마산의 친구들과 함께 뒷정리 만찬장에 모였다. 수고한 친구들을 격려하면서 지금 이 나이에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는 안부 얘기들과 흘러간 예기들로 웃음을 함께 나눴다. 공연장에 초대됐던 유가족 모두도 만찬장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3월은 위대한 달이다. 3월1일은 항일독립운동이 일어난 날이요, 15일은 1960년도 민주항쟁에서 김용실 열사가 청춘나이에 ‘민주횃불’, ‘자유의 등불’ 이 된 날이다.

3.15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꽃 같은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마산시민들의 정의감과 올곧은 시대의 새로운 획을 긋게 한 반세기만에 국가기념일로 승격 지정되었다. 오늘날 이 땅의 민주화는 그날의 희생이 꽃이 되어 피어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3월은 한국인의 민족혼이 분출한 달, 애국정신이 뜨겁게 폭발한 달, 우리 국민의 정의와 용기를 세계만방에 장엄하게 드높인 달이다. 목숨을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인다. 殺身成仁의 고귀한 행동이며 捨生取義의 장엄한 행동이다.

3월 동창회는 우리 편집장 제갈선광 동문의 病故로 발행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하루속히 快差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고 있지만 이미 봄꽃은 꽃망울을 활짝 펴트리며 화사한 봄소식을 전하기 마련이다.

산수유, 매화, 목련, 진달래 진한 꽃향기를 맡으려 4월 초순경에 등산친구들과 함께 진달래 군락지인 마산의 대산을 찾아 꽃향기에 흠뻑 취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짐짓 그날이 어서 오길 기다려진다.

참석자

본부

곽영식 구해룡(2)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용인(2) 김정수(2) 김준형 김채열(2) 김태욱 남기제(2) 박소학 배종길(2) 변민욱 변재국(2) 변중일(2) 손기홍 송인창 신용운 신창한 우용태(2) 이무일 이복열 이성환 이아인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장정치(2) 전기용 정정용 정종필 조정웅 조종석(2) 지해경 윤영숙(최광수 부인) 황영일 황한균 황희생 이상54명

재부

강신평 김성광 박용우 박진형 이강복(2) 이의승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재경

성재삼 방학기

▷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에 맞서 교실을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3·15의거의 51주년을 맞아 더욱이 금년부터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라는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날의 51주년을 맞이한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은 친구 ‘김용실 열사’에게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 추모 공연은 우리들이 돌려 주어야 할 빛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1년 2월~3월

수입			지출		
적요	금액	비고	적요	금액	비고
회비	2,380,000	김기대 김기현 김석백	회보 (2월호)	200,000	인쇄(봉투포함)
		김성규 김순택 배종길		57,560	발송(수첩2권포함)
		변재국 변재웅 변종일	월례회	480,000	2월(청당식당)
		이아인 이종섭 정종필	315협찬	552,000	부산박용우(우리은행)
		황동철 각15만원	위로금	200,000	조정웅 전임회장
		김선규 송인창 각10만원	엽서	17,600	월례회안내(80매)
		김용인 정정용 재갈선광	경조	200,000	정종필 혼가
		황한균 각5만원			김용실추모의 밤
협찬	200,000	황영일 3만원	월례회	360,000	3월(김용실추모의 밤)
		김정수, 정종필 혼가		69,000	뒷풀이 맥주 등 음료
315협찬	550,000	구해룡 변재국 변재웅	식품	53,520	동창사무실 커피 등
		황한균 각10만원		봉투	3,100
		김선규 김성규 김용인	렌탈비	39,800	정수기 2~3월분
		각5만원		시청료	13,160
환불	400,000	에어컨 수리비 환불	관리비	321,600	동창회(2~3월분)
기타	40,000	바다여행 노래방	수당	300,000	총무(2~3월분)
모금함	420,000	2월 22만원			
		3월 20만원			
수입계	3,990,000		지출계	2,867,340	
전기이월	258,773		차기이월	1,381,433	
합계	4,248,773		합계	4,248,773	

잘 못 읽기 쉬운 漢字(字)

茶禮 (O)차례, (X)다례	蹉跌 (O)차질, (X)차실	參差 (O)참치, (X)참차
慙愧 (O)참고, (X)참귀	懺悔 (O)참회, (X)성회	斬新 (O)참신, (X)점신
暢達 (O)창달, (X)양달	漲溢 (O)창일, (X)장익	刺殺 (O)척살, (X)자살
闡明 (O)천명, (X)단명	鐵槌 (O)철퇴, (X)철추	尖端 (O)침단, (X)열단
帖文 (O)체문, (X)첩문	貼付 (O)첩부, (X)첨부	諦念 (O)체념, (X)제념
忖度 (O)촌탁, (X)촌도	寵愛 (O)총애, (X)용애	撮影 (O)촬영, (X)찰영
翠松 (O)취송, (X)비송	推敲 (O)퇴고, (X)추고	秋毫 (O)추호, (X)추모
追悼 (O)추도, (X)추탁	醜態 (O)추태, (X)귀태	衷心 (O)충심, (X)애심
熾烈 (O)치열, (X)직열	沈沒 (O)침몰, (X)심몰	鍼術 (O)침술, (X)함술
蟄居 (O)칩거, (X)집거		

원고접수 E-mail : wing44@paran.com



지난달 3월 21일(월) 18:30에 동보성 중화요리집에서 재부동창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주요안건으로 2012년 졸업 50주년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어서 신임회장 문제를 협의한 끝에 조창식 회원이 재부 마고21기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총무는 조영민 동문이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 참석자
 권기욱 김덕조 김성광 김수용 김준태 김지남 박진형 박철길 이강복 이의성
 이장우 윤성업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조창제 천성태 최진화

2011년도 재부동창회 회장단

회 장	조 창 식	011-586-5288
총 무	조 영 민	010-3565-0004



지난달 3월 22일 오후6시, 역삼동에 있는 돈좌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신임회장은 해외여행으로 부재중인 박필근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으며 총무 지명은 신임회장의 취임 후에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석자
 김기철 김덕조 김영웅 김창환 문동영 박광지 박금준 박박중 박용시
 방학기 서종성 성재삼 송일성 이상환 이석우 임홍무 조용석 조재호
 주영국 주유삼 허양도 이상21명

2011년도 재경동창회 회장단

회 장	박 필 근(예정)	010-8377-7000
총 무	차후지명	



- ❖ 권기욱 동문
 동문의 새 휴대폰번호입니다.
 010-4802-5456

본부동창회 2월 참석자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영 김용인 김정수
 김준형 김채열 김태욱 박소학 박영환 배종길
 변민욱 변재국 변재웅 변종일 손동개 송인창
 신찬한 여경현 우용태이무일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장정치 정정용 정종필 조정웅 지해경
 황동철 황한균 황희생 이상39명

동창회 회비를 완납하여 동창회를 활성화 합시다.
 미납된 회비는 이월되어 납부해야 하오니 양해하시어 완납하도록 합시다.

제4차 마고21기우외 바둑대회

지난 2월26일(토) 동창회사무실에서 마고21기우회 제4차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다수의 동문 바둑애호가들과 참관자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수상자와 협찬자 등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 상 자			협 찬 자	
1등	손동개	10만원	박필근	100만원
2등	조종석	5만원	배종길	30만원
3등	이성환	3만원	변재국	10만원
4등	배종길	2만원	황한균	5만원

참석자	참관자
박필근(5단) 손동개(4단) 박소학(3단) 우용태(3단) 남기제(2단) 변민욱(초단) 신창한(초단)	김영 김준형 박영환 이종량 황한균
정창봉(2급) 조종석(2급) 이성환(3급) 이승훈(3급) 이종섭(3급) 손기홍(3급) 김기현(4급) 배종길(5급) 지해경(5급)	

FotoGallery



한송이 목련으로
그렇게도 시리던 지난 겨울을 망각하고 만다...

Fuji 5pro | Nikon 28-200mm | F5.0 | 1/800 | 62mm | -0.3EV | ISO 125

지지 않으니 모르는게 해도 여자들이 본다면 침을 흘리고도 남겠다.

-시험 삼아 집사람을 한번 데려와 봐야지. 아냐 아냐, 틀림없이 매일매일 구박만 받을 테지. 그래도 한번은 봐야 할 텐데.....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보니 광영식이 지은 것도 아이고 택도 없더라.

눈이 시리도록 감상을 하고 식수대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엄마와 딸인 듯 팔짱을 끼고 산책을 나왔다. 웬다구나 저쪽으로 방향을 잡는걸 보니 어떤 표정들을 지을지 궁금하여 걸음을 멈추고 슬쩍 훑쳐본다. 아나나 다들까 모녀가 조각품 앞에 서서 올려다보는 순간 민망한 엄마는 두말 않고 딸을 어서 가자고 팔을 끌고 대학생인 듯한 딸은 신기한 듯 한손은 입을 가리고 눈은 여전히 물건에 꽂혀 있다. 끝내 끌려가면서도 눈을 떼지 않는걸 보자니 내걸 보인 것처럼 기분이 야릇해 지더라.

저걸 보고 잠자리에 들면 자꾸자꾸 떠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별 희한한 생각도 다 해본다.

“산을 오르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오늘은 도색잡지를 보고 말았다. 하여간 마음을 다잡고 퇴계 이황선생의 가르침대로 산을 오르기로 한다. 산 위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장복터널로 이어지는 도로와 마주치고 도로를 건너 오르면 소나무와 편백나무 숲 사이로 길이 열려 있고 곳곳에는 긴 의자와 작은 그네가 있는 쉼터가 있어 삼림욕하기에는 그저 그만인 것 같다.

(다음달에 이어짐)

수림화랑에서 알립니다.
오동동 해안도로변 수림화랑에서, 평소에 고이 소장해오던 고품격의 고미술품 - 동양화, 유화, 석물, 고가구 등을 전시하고 있는 정정용 동문께서 건강이 여의치 않아 더 이상 화랑을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 금년 10월21일까지 6개월간 마고동문들에게 통 큰 세일행사로 엄가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문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찾아주셔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품격의 고미술품 · 석물 · 고가구 -

수림화랑

鄭正溶

010-2709-0890
055-248-0890(집)

가양골한정식 오동동주유소 마고동창회사무실
해안로 수림화랑 산호동
6층 발리모텔 마산관광호텔

창원시 마산 합포구오동동 306-1
발리모텔 옆 6층건물 1층

제갈선광 블로그에서 보기 : <http://wing91.tistory.com/2453>



진해 드림로드 (1)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게 하는 진해 드림로드!
우리가 Dream이라고 하면 말만 들어도 축구

4강 신화가 제일먼저 떠오르지 않든가. 그 감동! 잊을 수가 없었는데 진해에도 드림로드가 있다니 얼마나 멋진 풍경이기에 그 감동적인 드림로드라 이름 했을까,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 없다.

장정치

‘하늘마루 산길’, ‘해 오름길’, ‘고요 산길’, ‘소사 생태길’ 이렇게 4개 코스를 연결하여 만들었다니 기대를 잔뜩 부풀려

서 길을 나서 본다. 장복산 공원에서 출발하여 천자봉 만장대쪽으로 13.8km를 4시간쯤 잡고 내려올 참이다. 이어지는 3, 4코스 만장대에서 백일뿔산까지는 연결이 불분명하고 시간도 많이 잡힐 것 같아 두 코스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 계획을 잡았다,

출발은 옛날 진해시민회관인 구민회관에 주차를 해 놓고 마진터널 쪽으로 걸어 오르면 대광사 입구에서부터 나무테크길이 장복산 입구까지 안내를 해 준다. 공원으로 들어서면 아름답리 빛나무 숲들이 겨울준비를 하느라 잎들을 다 떨구어 내고 처연한 모습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서 있다. 조금 더 오르면 솟대가 바람 부는 쪽으로 이리저리 머리를 돌리느라 쉴 사이가 없고 더 위로는 스텐으로 제작된 조각품들도 드문드문 눈에 들어온다. 알고 보니 길 건너 쪽에 진해 장복산 조각공원 이라는 안내판이 서 있다. 뭐가 이리 시시해 조각공원 이라면서…….

툭툭대며 오른쪽 작은 장복교를 건너보니 식수대 쪽으로 건장한 남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훌쩍 벗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벌을 서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세 놈이 똑 같이. 가까이서 보니 어라!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저 물건!! 화! 기가 막힌다. 저건 물건이 아니고 명품이다 명품!!

어쩌면 다듬는 순간에도 불끈 불끈 하지 않았을까. 하여간 한동안 입이 다물어

7쪽에 이어짐-

2011년 4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1일(목) 오후 6시
장소 : 고바우집 (245-7430)
시골밥상 앞



부인회

일시 : 21일(목) 12시 30분
장소 : 고바우집 (245-7430)